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시작돼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루씩 묵상해 나가



올해는 부활주일이 3월 27일이다. 그래서 내일(21일)부터 25일(성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시간을 갖게 된다. 말씀은 문동학 담임목사가 전하게 되며, 말씀의 제목은 가상칠언, 말씀의 매일 본문은 다음과 같다.

월요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눅 23:34, 43)

화요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 19:26)

수요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 27:46; 막 15:34)

목요일, "다 이루었다" (요 19:28, 30)

금요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눅 23:46)

이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기간에는 매일마다 교회 내외의 몇몇 사역팀들 중심으로 특송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 명단은 아래와 같다.

월요일, 시온 찬양대

화요일, 정신학원 선교팀

수요일, 샬롬 찬양대

목요일, 앙코르 찬양팀

금요일, 교회학교 교사 연합

새벽기도회 때 말씀 선포이후에도 조명을 끄고 묵상 찬

양을 계속 틀어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도울 계획이다. 새벽기도회 이후 곧바로 출근하는 성도들을 위해 빵과 음료도 함께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25일 성금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대강당에서 호산나 찬양대 주관으로 성금요일 칸타타가 있을 예정이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성 금요일 수난절 칸타타 "어둠을 이기고"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열려

성 금요일 음악예배가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음악위원회 주최, 호산나 찬양대 주관으로 드리게 된다.

이번 성 금요일 수난절 칸타타는 존 퓨리포어의 "어둠을 이기고"라는 곡으로 부르게 되며, 음악위원회 위원장인 최창섭 장로의 곡 중 낭독이 있을 예정이다. 전체 6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어둠을 이기고, 2부는 이 떡과 이 잔, 3부는 깊은 밤중에, 4부는 예수를 못 박아라, 5부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마지막 6부는 1부 어둠을 이기고를 재현하는 부분이다. (4면에서 계속)



30대가 모여 예배합니다
매월 30 CUP WORSHIP SERVICE
30 번째 주일, 중예배실

30 CUP, 30대 사역이 시작됩니다.



숨어 있는 30대들이여, 지금은 예배할 때며, 기도할 때입니다. 결혼, 직장, 육아... 숨

쉴틈 없는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배하는 자녀이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읍시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몸부림쳐 봅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4월 17일 "가정" 강지원 변호사 [청지]법률사무소 소장
5월 15일 "문화" 이용수 교수 (세종대, KBS축구해설위원)
6월 19일 "신앙" 문희곤 목사 (예수전도단 대표, 주님의교회 협력목사)
8월 21일 "CUP" 김현령 전도사 (30 CUP 담당)
9월 18일 "경제" 김현아 박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첫모임이 4월 17일 오후 5시 30분 주님의교회 지하 1층 중예배실에서 시작됩니다.

탁아와 수유 시설이 준비되며 영아는 부모와 함께 이차하수 있습니다

2004년 4/4분기 정기제직회 열려 지난주 수요일 성경공부 이후 시간 가져



지난 수요일(16일) 오후 8시 30분, 수요일 성경공부 이후 시간에 중예배실에서 2004년 4/4분기 정기제직회가 있었다. 여기서 다뤄진 주요 안건으로는 2004년 결산안 보고를 결의하고 2005년 예산안을 결의했다. 그리고 우동윤, 이호, 정영환 목사에게 대한 부목사 계속 청빙을 결의하고 김현령, 박의일 전도사에 대한 목사안수 청원과 부목사 신규 청원을 결의했다. 2005년 예산안이 이번 제직회에서 결의됨에 따라 각 위원회와 부서 및 팀에서 올해 계획한 사

업들이 계획일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각 위원회별 보고사항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고 담임목사의 기도로 2004년 4/4분기 정기제직회는 폐회되었다.

매주 수요일마다 구역 이끄미 모임 열려

2005년 봄 학기 구역 이끄미 모임이 시작되었다. 이끄미는 구역을 이끄는 구역 지도자 모두를 총칭한다. 여기에는 구역장으로 섬기는 섬기미와 권찰로 구역을 돌보는 돌보미, 그리고 지역장으로 몇몇의 구역장들을 함께 살피는 살피미 모두를 포함한다. 이 모임은 수요일 성경공부 이후 매주 수요일마다 지하 1층 찬양연습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주에는 이번 봄 학기동안 구역 모임의 교재로 사용될 에베소서 바인더 교재를 나누었다. (4면에서 계속)

방과후 학교 입학식

청소년을 향한 열정과 감동



지난 토요일(12일), 오후 2시부터 제 3집회실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주

2층 수련실에서 있었다.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교실을 찾느라 약간 붐비었

말학교인 '방과후 학교' 입학식이 있었다. 입학식은 교사 40명과 학생 약 80~90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이 되었다.

입학식 후에는 수업과목을 신청한 학생들과 담당 교사간의 오리엔테이션이

지만 대체로 학생들 각자가 시간표를 보고 교실을 잘 찾아서 수업 담당 교사와의 만남이 원활히 이루어졌다. 현재 방과후 학교는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신청해서 학생모집을 마감한 상태이다.

만약 방과후 학교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이 있다면 다음 달인 4월에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방과후 학교는 주님의 교회가 청소년사역에 집중하여 차세대 우리나라의 영적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실천의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방과후 학교는 지역 사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교를 초월하여 학생들을 모집

하였다. 앞으로 주 5일제 수업이 본격화 될 때를 대비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을 제공하며, 학습에 도움이 되게 하고, 그들이 가진 소질을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자 한다. 나아가서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립시켜주며 더불어 잘 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본이 되고자 한다. 또한 청년 교사의 활성화를 통해 꾸준히 교사들을 양성하고 배출하여 사회 곳곳에서 '글방' 등으로 헌신할 수 있는 자질을 개발하고, 도움을 받는 청소년들이 청년교사들을 본받아 대를 이어 봉사할 수 있는 봉사의 고리를 연결해 나가고자 한다.

목요모임

교만한 선입견을 깨시는 충격적인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

3월 17일 목요모임은 문희곤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한 선입견을 깨시는 충격적인 계시를 주시곤 한다. 마태복음 3장 7~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며 하시는 말씀이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잘못된 권위 가운데 있으며, 믿고 있다는 실제 아버지가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알리시는 것이다. 바리새인은 정기적인 금식과 예배와 모임에 충실한 자들이다. 그런데 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 잘못된 가르침과 권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읽다 갑자기 한 구절이 계속 맴돌았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눈이 멎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선입견을 깨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깨고 돌들로 그들 대신 다시 만들었느냐?" 분명히 안하셨다. 땅이 그들을 삼키게 하지 않았다. 돌들로 만들지 않고 그들을 두는 것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에게 기회를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다. 빨리 돌아오길, 공허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며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시고 계신 하나님이다. 가하지만 안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또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때 얘기만이 아니

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현재도 유효한 말씀이다. 내가 실상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습관적인 회개, 형식적인 고백은 안된다. 잘못된 빈도가 줄어야 한다. 아침마다 기도하라 음란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술 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 속으로 영적인 교만, 자만감에 빠지지 말라 직분으로 안정감을 가지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경고를 교회생활에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에 품어야 한다.

요리미션으로 특별한 새가족파티를



두 모여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는 식탁 공동체를 통해 형제자매들을 더욱 잘 알아가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6개의 각기 다른 요리가 미리 정해진 상황에서, 새가족들 및 도우미와 간사들이 6개 조로 배분한 후 제비뽑기를 통해 요리미션을 받고 만들어진 재료로 요

지난 3월 13일 주일 오후 4시, 교회 지하 식당에서 청년부 새가족반의 새가족 파티가 있었다. 2005년도 첫 주부터 지금까지 몸담고 있는 새가족들과 도우미들, 그리고 간사들이 모

리를 만들고, 다 함께 나누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서먹함도 있었지만, 함께 재료를 씻고 다듬고,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맛을 봐가며 분주해지기 시작하자 어느덧 어색함을 털어 버리고 파티가 무르익어 갔다. 요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는 다른 조들을 오가며 서로의 요리를 미리 맛보고, 서로 인사하며 친숙해져 갔다. 요리가 완성된 후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가 만든 정성스런 작품들을 나누며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었고 파티는 막을 내렸다. 이후 뒷정리는 새가족반 도우미, 새가족들의 구분 없이 서로 술선하여 설거지하고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행사의 계획부터 진행, 그리고 마무리까지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주님의 교회 청년부 새가족반은 올해부터 모두 6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매주마다 성경공부와 친교를 나눈다.

2005년 1학기 양육 클래스 강사 모임

2005년 1학기 양육 클래스 강의는 3월 27일(주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1시에 대회의실에서 양육위원회 주관으로 이번 1학기 양육 클래스 모든 강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모임이 있을 예정이다. 이 모임에서 출석부와 바인더를 받고 1학기 동안 양육 클래스를 인도해 나갈 방향과 계획에 관해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양육 클래스를 수강할 모든 성도들과 강의할 강사들을 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 1학기 양육 클래스는 3월 27일에 시작하여 7월 8일(금)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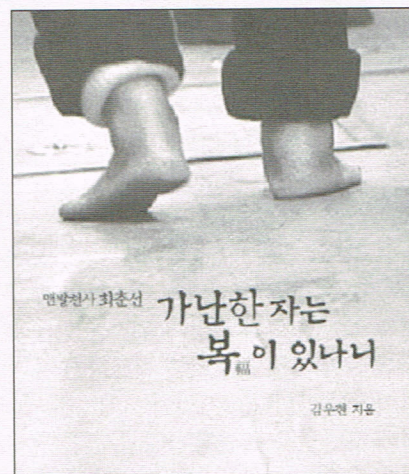
오늘 기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폭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잡옷을 삼으라.
이는 폭체의 고난을
받을 자는
죄를 그쳤을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폭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팔복’ 영상 제작자 김우현 감독 4부 청년예배에 간증

오늘 오후 1시 30분 중예배실에서 드려지는 4부 청년예배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사명은 각각이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라고 고백하며 절대적 순종의 삶을 사셨던 최춘선(목사) 할아버지의 삶을 몇 년간 영상으로 촬영하며 할아버지와 함께 하였고 이제 그분이 남긴 열매들을 발견하며 또 다시 폭풍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김우현 감독의 간증과 함께 자신의 사명에 절대적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에 대한 윤은성 목사의 메시지로 꾸며지는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된다. 1시 30분 정각부터 영상의 상영



이 시작되므로 참여할 분들은 그 전에 중강당에 입장하여야 한다.

교회학교 이모저모

아주초등학교에
정탐하러간 교사들

“친구야! 너 교회 다니니?”

손에 가지고 있던 알록달록한 사탕 하나를 건지면서 초등학교 교문을 나오는 한 예쁜 초등학생에게 말을 건넨다. 아주 오래전 기억이 난다. 초등학생이었을 때 지하철을 돌아다니면서 승객들에게 교회 전도지를 나눠주며 전도를 했었는데.... 학교에서 나오는 귀여운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하는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지난 3월 5일 토요일 초등부 교사들은 교회 근처 아주초등학교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 위한 정탐에 나섰다. 약간 쌀쌀한 날씨에 사탕을 쥐고 있는 손이 시리기도 했지만, 학교 앞에 도착한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앞으로 있을 본격적인 전도활동을 위해 아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이들이 주로 가는 출구는 어디인지? 같이 게임을 하면서 친해질 수 있을지 등 정탐을 나

가기 전 머릿속으로 고민해보던 문제들을 실제 현장에서 확인해 보면서 앞으로의 전도활동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영혼을 구해야겠다는 한 마음으로 초등부 전도사를 비롯한 함께 한 모든 교사들은 하교길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그런 교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고, 앞으로의 전도활동이 기대가 되었다. 처음부터 많은 아이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면 그 아이를 통해서 또한 복음의 씨앗들이 퍼져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며 교회로 다시 돌아오면서 앞으로 맺어질 귀한 복음의 열매들에 대한 기대로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는 엽서

3월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에 싹트네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집 우편함에 자신의 이름 앞으로 도착한 그림 엽서를 받아 보았다.

씨앗반, 새싹반, 봉우리반, 꽃님반, 열매반의 이십 여명의 아이들에게 생긴 일이다.

기존에는 주보에 알리는 글을 실어 아이들 전체와 부모에게 공지만 하였고 개개인에게 알리는 것은 거의 없었고 특별한 내용이 있을 때는 구두나 전화로 부모에게만 알렸었다. 아이들에게 싹트네 예배 시간 외에는 직접적으로 싹트네와 하나님을 알린 적이 없었다.

그래서 아이들 개개인에게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싹트네 담당 전도사가 각 반의 담임교사에게 권유하여, 교사들이 직접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 스티커 등을 꾸며 사랑을 가득 담아 엽서를 써서 보낸 것이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 엽서를 받은 자체만 좋아할 뿐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2주마다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엽서를 보내기로 하였다. 아이들 맘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달될 수 있는 엽서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싹트네 교사들은 늦었지만 교사들의 단합을 위하여 4월 첫째 주에 MT를 가기로 하였다.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는 교사와 올해 처음 사역하는 교사들 간에 더욱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마련한 자리다.

이 친밀함을 통해 싹트네 사역을 더

충실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예수님의 작은 선교사로
아이들을 키워요

주님의 교회 유아부 어린이들은 유아60여명과 교사25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아부 어린이들은 "나는 예수님의 작은 선교사"라는 저금통을 저마다 선물로 받았다.

뚜껑을 열수 있는 이 작은 저금통은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이 엄마와 함께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들을 위해 정성껏 모은 예물이다. 이렇게 귀하게 모여진 성금은 매달 마지막주에 교회에 가지고온다.

지금은 인도에서 선교하는 이영란 전도사와 터키에서 선교하는 이진영 선교사에게 전해진다. 비록 작은 액수지만 작년에는 인도에 있는 친구들에게 손가락인형과 풍선등을 보내줄 수 있었다.

작년에 이어 2년째 우리친구들이 작은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를 생각하는 예쁜 마음을 키우게 된 것이다. 유아부 어린이들을 돌보는 어머니들의 정성에 감사드리고, 올해도 유아부를 더욱 사랑해주실 것을 기도한다.

볼티 2반 4월 2일 오픈,
3월 26일 전야제 가져미국 시카고 어와나 본부에서
우리교회 어와나 취재해

요즘 어와나 클럽은 새로운 볼티 2반 친구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

먼저 10명의 교사들이 새롭게 볼티 2반에 참여하기 위해 기본 교육을 받았으며 각자에게 맞는 역할이 맡겨졌다. 또한 볼티 1반의 클럽 진행 모습을 곁에서 진지하게 때로는 재미있게 참관하면서 새로운 사역에 힘찬 발걸음들을 내딛고 있는 것이 참으로 마음 든든해 보인다.

볼티 2반은 3월 26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전야제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이렇게 되면 어와나 클럽의 볼티 1, 볼티 2 단원의 수는 약 110명 정도가 된다.

볼티 2반의 준비 과정 속에는 볼티 1반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볼티 단원들을 맞이하는 설렘으로 가득하다.

지난 주 12일에는 미국 시카고에 소재한 어와나 클럽 본부에서 주님의교회 어와나 클럽의 단원 취재가 있었다. 취재할 단원의 조건으로는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볼

티 단원으로 인하여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게 된 경우이다.

그러한 조건을 갖춘 단원이 우리교회 어와나 클럽 멤버들 가운데 있는지 취재했으며 어와나 클럽이 있는 모든 나라에 배포되는 어와나 신문에 기사화 된다고 한다.

클럽 미팅이 끝난 후에는 어와나 클럽의 사역과 단원들을 위한 교사 모임이 있었다. 어떻게 하면 더욱 단원들을 잘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어와나를 담당하고 있는 유명안 전도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밤 늦은 시간까지 건설적인 방안들을 협의하며 의견을 나누었고 중요한 시기에 교사들의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볼티 2반은 4월 2일 토요일에 드디어 첫 클럽 미팅을 갖는다. 오픈 시간은 볼티 1반 보다 1시간 뒤인 오후 4시에 오픈하며 매월 마지막 주는 쉬게 된다. 새롭게 시작되는 볼티 2반과 어와나 클럽의 교사와 단원들을 위해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게임시간이
자연스럽게 예배로

2005년 3월 13일 주일 레인보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 갔다.

하나님 앞에 예쁜 몸짓으로 찬양하는 통합아동부 아이들이 한없이 사랑스럽다. 또한 게임시간에도 어찌나 열정으로 참여하는지,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예배는 딱딱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 자연스러움으로 드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의심이 많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그럴까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고 참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이번 3월에 학교로의 첫 발을 내딛은 Red반 1학년 어린이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을 품기를 소원한다.

유치부를 섬기는
남자 교사 4인방 소개

유치부에는 현재 모두 35명의 교사가 섬기고 있다.

대부분은 예쁜 목소리와 상냥한 미소로 유치부 어린이들을 맞이하는 여자 교사들이다. 하지만 아이들을 들어 번쩍 안아주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없어서는 안 될 남자 교사는 현재 네 명이 있다. 강웅순, 김현수, 윤석민, 차세일 이 네 명의 남자 교사는 모두 아주 미남인데다 여자 선생님들 못지않은 따뜻한 미소로 아이들을 사랑해 준다.

유치부 개구쟁이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고 유치부의 곳곳을 맡없이 도와주는 네 분의 멋진 남자 선생님들. 유치부의 든든한 기둥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더 많은 남자 청년과 성도들이 유치부를 비롯하여 여러 교회 학교 부서에 봉사하는 교사로 지원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

일반 초등학교에만 남자 교사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학교에서도 남자 교사가 부족한 것은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권사회월례회, 먹는 기쁨을 나누며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
여러 10분 전부터 울려 퍼진 찬양 소리
에 마음이 뜨거워져 성령충만함으로 시
작된 시간이었다. 이지연 권사님의 진
리의 열매 · 사랑의 열매 · 화평의 열
매로 권사들이 쓰임 받기를 간구하는
기도에 이어 이창현 목사님의 「사람의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2:22
- 26 말씀을 선포하셨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즐거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하는 말씀과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시간, 사랑을 가
지고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권사들이 되기를 권면하셨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의 마지막을 생
각하며 지금 이 순간 나의 모습, 나의 삶
을 생각하게 하시는 시간이었다. 예배
후 식당에서 권사들과 그시간 교회에
계셨던 모든 분들과 먹고 마시는 즐거
움을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1면에 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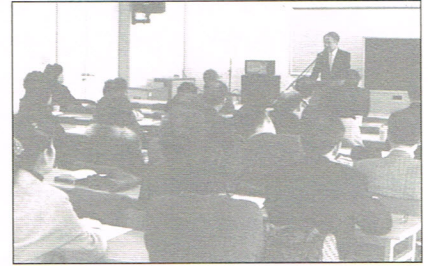
성 금요일 수난절 칸타타 “어둠을 이기고”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열려

이 수난절 칸타타 이후에는 담임목사의
집례로 성 금요일 성찬식이 있을 예정
이다. 1부 예배를 섬기는 호산나 찬양
대가 오랜 시간 동안 연습하고 준비하
여 발표하는 성 금요일 음악예배이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격려하며, 무
엇보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살
이 찢기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
이 묵상하는 뜻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하프타임사역모임 첫 모임에 임원선출과 격려사

2월 13일 하프타임 모임을 있었다. 모
여서 먼저 예배를 드린 후 하프타임사
역의 임원을 선출했다. 회장으로서는 이
을형 장로가 선출되었으며, 부회장으로
정용섭 안수집사 외 8인이다. 감사로는
이종석 집사와 박인호 집사, 총무는 남
장희 집사가 맡게 되었다. 박호길 장로
는 시대의 흐름 속에 소외될 수 있는 인
생의 시기에 자신이 지금까지 다져온



지난날의 지식과 경험으로 교회를 통하
여 섬김과 나눔으로 최선을 다할 때, 교
회 안과 밖에서의 모범과 성장이 있을
것이라는 격려사를 전했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를 찾아서

지난 3월 8일 오전 11시 탈북자 선교회 팀장(설영
운집사)과 담당목사(정희성)가 탈북청소년을 대상으
로 도시형학교를 운영하는 여명학교를 탐방했다. 관
악구 봉천동 소재 상가건물 3,4층에 위치한 여명학교
는 중·고등부 30여명의 학생들과 교사 10여명이 한
국사회 적응과 통일의 내일을 준비하며 구슬땀을 흘
리고 있었다. 좁은 공간의 교실과 사무실이지만, 교사의
열정적인 가르침과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동자속
에 새로운 내일을 그려볼 수 있었다.

우기섭교장으로부터 학교설립 배경과 진행과정을 설
명듣고, 우리교회와 여명학교가 어떻게 협력해야하
는지에 대해서 간담을 나누었다. 일정한 규모의 재정
적인 지원 및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나누었다.

조명숙 교감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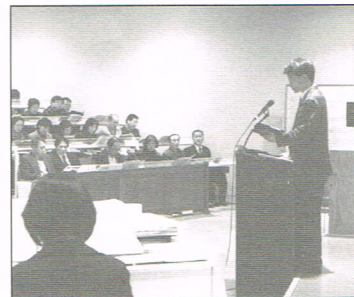
“주님의 교회 청소년들과 축구시합을 했으면 참 좋
겠네요. 바자회도 좋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집에서
반찬 없이 밥을 먹어요 반찬 만드는 것도 가르쳐 주시

면 얼마나 감사 할까요”

이후에 우리는 제자교회에서 학교에 점심식사를 제
공하고 학생들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며 자
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
게 되었다. 미래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첩경은 이들과
함께하는 법을 우리 교회가 먼저 익히는 것이 아닐까?
이 일을 위해 오늘도 탈북자 사역팀은 땀과 헌신을 아
끼지 않을 것이다. 함께하실 분은 팀장인 설영운집사
(017-361-2233)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

(1면에 이어서)

매주 수요일마다 구역 이끄미 모임 열려



봄 학기 동안 구역
모임 교재로 사용
될 이 교재는 주의
사랑으로 쓴 편지
라는 제목을 가지
고 있는데, 이 교
재는 이인호 목사
가 지난 겨울 방학



을 이용하여 직접 집필한 내용이다. 매주일 구역 모임
때 나누게 될 내용은 수요일 저녁 구역 이끄미 모임을
통해 다음주 교재가 분배될 예정이므로 구역 이끄미
들의 모임 참석을 필수로 요청한다. 다음 주일은 고난
주간 관제로 한 주 쉬게 된다. 4월에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식이 있는 날도 구역 이끄미 모임은 계속될 예정
이다.

정정합니다

지난 3월6일자 함즐함울의 '호산나수련회
메시지, 찬양의 본질을 잊지말기를' 제목의
기사문의 맹인가수 이름 '레이찰스'를 '안드
레 브첼리'로 정정합니다.

통합아동부 우병선 전도사



안녕하세요.
이번에 레인보
우(통합아동
부)를 새로 섬
기게 된 우병
선 전도사입니
다. 먼저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
좋은 분

들을 만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
해에 새 사람들과 새로운 장소에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 기쁘게 생각합
니다. 저의 집안은 원래 기독교적 환경은 아니었습
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로 인한 전도로 지금은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까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들인 제가 전도사(신대원 3학년)
까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가족
과 친척을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란 참 힘
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
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레인보우
를 통해 이 은혜를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전 어린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없으면 청년이 없고 청년이 없으면 장년이 없듯이
어린이가 없으면 청소년과 청년, 장년 사역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가장 스폰지처럼
잘 빨아들일 수 있는 연령이 어린이이기에 그 사역
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
에서 제 속을 무척이나 썩이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찌나 장난이 심한지 그 아이 때문에 제가 시험에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아주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이기에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그 교회에서 사역을 마
치던 마지막 날에 그 아이가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
다. 편지의 내용은 “전도사님 안녕히 가세요. 전도
사님 저도 이담에 커서 훌륭한 전도사님도 되고 목
사님도 될 거예요. 전도사님 사랑해요!”였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2주 동안 들고 다니면서 사랑했습
니다. 전 이런 한 아이,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부가 좋은 열
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하나, 하나를 가꾸며 수
고 하듯이 저 또한 농부의 심정으로 한 영혼, 한 영
혼을 아끼는 심정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
에 동참하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에 기도의 후원이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부디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사역자로 기
역에 남고 싶습니다.